

미국 관세조치 등 해외수출규제대응 추가 지원

중기부, 추가경정예산 100억원 투입해 300개 기업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28일 중소기업들의 해외수출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최근 트럼프 정부의 관세부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100억원을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조치를 계기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관련정보와 자문 등을 제공하고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인증획득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한다.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 인증,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50~70%)를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보조해 준다.

이번 추정사업에서는 기존에 최대 신청건수(4건) 제한없이 지원 가능했던 소액인증 지원 한도를 기존 3,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중기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에 이미 참여하여 진행 중인 인증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사업참여를 허용한다. 또한 인증 사전심사·진단을 신설한다.

해외인증 취득 초보기업들이 시행착오 없이 바로 인증획득이 가능하도록 인증 준비과정을 도와 주는 사전 컨설팅 제도가 도입된다.

인증 전문가가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에 필요한 서류 구비나 현장실사(공장심사)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줌으로써 인증획득 실패를 최소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수출규제 관련정보 및 전문상담 제공 및 설명회를 개최한다.

미국 관세정책 변화를 비롯한 각국의 수출규제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를 통해 기업들의 문의사항이나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대응반을 운영한다.

더 나아가, 실시 간 접속과 문의가 가능하도록 'AI 챗봇 상담 시스템'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지역 기업들을 위해 전국 15

개 지역을 순회하며 수출규제 및 관세 설명회와 함께 전문가 상담도 진행하며, 주요 해외인증들의 개요와 준비절차 등을 담은 가이드북과 동영상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미국의 관세조치가 기업들에게 중대한 도전이 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 진출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성공적인 해외인증 획득 등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고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은 27일부터 진행되며, 동 사업을 비롯한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센터 누리집(www.sms.go.kr/globabari)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농어촌공, '자연재난 대비태세 점검' 나서

김인중 사장, "우기 철저한 대비 태세로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가를 장마와 태풍에 대한 철저한 대비 태세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재난 대응 점검에 나섰다.

김인중 사장은 지난 22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여름철 농경지 침수 방지 및 시설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공사의 선제적 예방과 실효성 있는 대비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경지·수리시설 피해 사례와 원인 분석, 중장기 재발 방지 대책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김인중 사장은 앞서 취임사에서 "이상기후에도 안정적이고 안전한 농업용수 이용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경영방침에 따라 공사는 농업 기반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역량을 높이는 한편, 재난 대응체계를 고



도화하고 있다.

공사는 저수지와 배수장 기능을 사전에 점검함과 동시에 구조적 개선과 수위 관리 등을 통해 여름철 집중호우에도 농업 기반 시설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와 배수장 등 모든 수리 시설물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

고, 이상이 발견되면 정밀 안전진단과 개보수를 진행한다.

5월 현재, 전국 저수지와 배수장에 대한 사전 점검과 정비율 모두 완료했다.

저수지와 배수장에 대한 성능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저수지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통해 보수·보강하는 한편, 사전 방류

시설과 보조 여수로를 확대 설치해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홍수(6.21.~9.20.) 동안 저수율을 80% 이하로 낮춰 관리할 계획이며, 호우 예보 시 추가로 물을 방류하는 등 저수지 수위도 빈틈없이 관리할 계획이다.

배수장의 경우,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침수 우려가 있는 전기시설은 안전한 위치로 이전하며, 노후 펌프는 신규 펌프로 교체하는 등 배수 능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

더불어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개선팀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농경지에 배수장과 배수로를 확충하여 원활한 배수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공사는 실시간 상황 감지와 신속한 초동 대응을 바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업용 시설에 계측기와 CCTV를 설치하고, 재난 안전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 중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상협, 농협은행 전북본부와 금융지원 협약 체결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NH농협은행 전북본부와 지난 28일 전주상회의에서 상호 협력 및 교류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전북지역 상공회의소 회원사에 우대급리를 적용하고 맞춤형 금

융지원을 통해 성장과 발전을 돕기로 했으며, 전북상협은 농촌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성훈 본부장은 "농협은행은 지역기업들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로서 책임감을 갖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

겠다"고 전했다.

김정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그리고 수출 및 내수 부진 등 대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운 시점에서 전북상협과 농협은행 전북본부가 상호 협력하여 기업하기 가장 좋은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 최선



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고온 취약한 약용작물, 관리 필수

농진청, "고온 피해·뿌리 썩음 등 병해충 발생"

농촌진흥청은 올여름 이상기상으로 인해 약용작물에서도 고온 피해가 우려된다며, 수확량과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약용작물 가운데 천궁 당귀는 서늘하고 통풍이 잘되는 산지 등에서 자라기 때문에 고온이나 직사광선 수분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하다.

두통과 어지럼증 치료에 널리 활용되는 천궁은 30도(C) 이상 덥고 습한 환경에 노출되면 생육이 좋지 않고 뿌리썩음병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생리불순 개선과 혈액 순환 촉진 등에 널리 활용되는 당귀는 덥고 습한 때 줄기 쓰러짐과 잎자루 부패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당귀는 고온 스트레스에 취약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고온기에는 작물의 증발산 속도가 빠르므로 토양과 작물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자주 췌 잎마름, 생장 정지 등 생리 장애를 예방해야 한다.

증발산이란 토양과 식물체에서

수분이 대기 중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증발(토양 표면, 수면, 식물체 표면에서 발생)과 증산(식물이 수분을 잎의 기공을 통해 증기로 방출)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또한, 호흡작용이 활발해져 에너지 소모가 증가하므로 영양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질소(N) 비료를 지나치게 많이 주면, 병해충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질소 대신 칼슘(Ca) 칼륨(K), 마그네슘(Mg) 등을 공급해 작물의 열 견딤성을 높인다.

진딧물·응애류 같은 해충, 탄저병·사들음병 같은 병 발생도 주의해야 한다.

기온이 25~30도(C)를 넘으면 해충 번식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므로 예방 관찰과 함께 제재지 잡초를 제거한다.

아울러 병에 걸린 식물은 즉시 제거해 확산을 차단한다. 병해충 발생이 의심되면 '농사로(www.nongsaro.go.kr)-작목별 병해충 정보'를 참고해 증상 확인 뒤, 관련 약제를 뿌려준다.

/오상근기자

신선·안전한 지역산 먹거리 공급 확대

바이오진흥원, 제2기 전북자치도 영양교사·영양사 협의회 출범

(제)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난 28일, 도내 학교급식에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산 먹거리 공급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급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북자치도 내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와 영양사 19명을 제2기 전북특별자치도 영양교사·영양사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열린 협의회에서는 △도 차원의 제철 농산물 DB 구축, △공산품 정보(사진, 규격 등) 표준화 추진, △지역산 가공품 품목·품질에 대한 정보 공개 및 품질의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2025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시행지침'과 관련하여 도내산 친환경 농산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시군센터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나왔다.

영양교사 위원들은 "현재 도내산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군센터의 전담 인력 확보와 기획생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시군 간 센터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산품 단가 산정 지역과 정보 부족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일부 위원은 "공산품 단가 확정까지 2주 가까이 소요되고, 사진이나 규격 정보가 없어 실제 납품된 품목이 학교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정보 제공 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역산 가공품에 대한 정보 부족과 시군 간 공급 가능 품목의 편차, 활용 가능 품목의 제한성 등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위원들은 "샘플 시식 없이 문서만 보고 품목을 선택해야 하는 현재의 구조는 현실적이지 않다"며, 시군 단위의 품평회를 정례화하고, 실제 품목 비교와 검토가 가능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근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